

## 쿰란 전쟁문서(1QM)의 세계관

이윤경(이화여대)

---

### 1. 들어가는 말

제2성전시대 후기 유대 광야에 거주했던 쿰란 공동체는 800여 편의 문서를 남겼다. 이 800여 문서를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류는 약 200여 개 문서로 구약성서 사본이다.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사본이 쿰란에서 발견되었다.<sup>1</sup> 두 번째는 약 400여 문서로 외경/위경 사본이다. 이 부류의 사본은 정경에 속하지 않지만, 희년서와 예녹서와 같이 쿰란문서가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알려진 문서이다. 마지막은 약 200여 개의 나머지 문서이다. 이 문서들은 쿰란을 통해 처음 알려진 종파적 문서(sectarian manuscripts)이다. 이 문서들이야말로 쿰란 공동체의 특징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마지

---

1 에스더서 외에도 느헤미야서 사본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유대교 전통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쿰란 공동체도 이 둘을 한 권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막 부류에 속하는 문서 중 하나가 전쟁문서이다. 전쟁문서는 쿰란 동굴 1번, 4번, 11번에서 발견되었다.<sup>2</sup> 이 중 1번 동굴의 문서가 가장 긴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고, 나머지 동굴의 사본은 파편 형태로 발견되었다.

구약성서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종말 전쟁에 대한 파편적 언급이 있다. 하지만 최후 전쟁에 대한 병법서 수준의 상세한 전략과 계획을 언급하고, 전쟁 이후에 대해 언급하는 문서로는 전쟁문서가 현존하는 제2성전시대 유대 문헌 중에서는 유일무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1번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1QM=1Q33)에 집중하여, 쿰란 공동체가 갖고 있던 전쟁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전쟁문서 연구는 구약성서의 거룩한 전쟁 이데올로기로부터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전쟁 개념으로 이어지는 전쟁관을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쿰란 공동체가 그들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미래를 기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 2. 전쟁문서(1QM)

전쟁문서는 1947년 베두인 목동이 처음 발견한 문서 중 하나였다. 그해 11월 당시 히브리 대학 교수였던 수케닉(Eleazar Lipa Sukenik)이 세계의 문서를 구매하였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전쟁문서였다.<sup>3</sup> 수케닉은 전쟁문서를 『어둠의 자녀에 맞서는 빛의 자녀의 전쟁 두루마리』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이 문서를 전사(transcription)하고, 예비 보고서를 준비하

---

2 1Q33; 4Q285; 4Q491-496; 11Q14

3 나머지 두 문서는 감사찬양시(1QHodayot)와 이사야 사본(1QIsaiah<sup>b</sup>)이었다.

였고, 출간하였다.<sup>4</sup> 그러나 그는 전쟁문서의 주석서를 쓰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후에 그의 아들 야딘(Yigael Yadin)이 현존하는 19개 단의 영어 번역과 상세한 주석을 제시한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전쟁문서의 각 단은 아랫단 몇 행이 사라지고, 평균 14행에서 19행이 남아 있다. 전쟁문서의 서체는 헤로디안 서체이며, 대략 기원전 1세기 말에서 기원후 1세기 초 저작으로 추정된다.<sup>5</sup> 하지만 전쟁문서의 저작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서체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 현존하는 문서는 헤로디안 서체로 기록되었더라도, 이 문서는 원래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문서의 저작연대는 서체뿐만 아니라, 이 문서에 나타난 무기와 전략 등을 살펴보고 추정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전쟁문서의 저작연대는 이 문서에서 ‘깃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대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깃딤은 셀루키드 군대이거나 로마 군대일 수 있다. 만약 셀루키드 제국이 깃딤이라면, 전쟁문서는 마카비 혁명(기원전 165/4년) 이후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깃딤이 로마라면, 폼페이 침공(기원전 63년)과 헤롯 죽음(기원전 4년) 사이의 시기라고 본다.<sup>6</sup>

내용 면에서, 야딘은 전쟁문서를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구분한다.<sup>7</sup> 두하임(Duhaime) 역시 거의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다.<sup>8</sup>

4 E. L. Sukenik, *The Dead Sea Scrolls of the Hebrew University* (Jerusalem: Magnes Press, 1955), pl. 16-34 and 47 (Hebrew edition, 1954).

5 전쟁문서의 발견 과정과 1QM과 4QM의 상태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Brian Schultz, *Conquering the World: The War Scroll (1QM) Reconsidered* (Leiden: Brill, 2009), ch.1.

6 Yigael Yadin, *The Scroll of the War of the Sons of Light Against the Sons of Darkn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Géza Vermes, *The Complet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Penguin Books, 2004). 164-165.

7 Yadin, *The Scroll of the War of the Sons of Light Against the Sons of Darkness*, 7-13.

8 Jean Duhaime, *The War Texts: 1QM and Related Manuscripts* (Bloomsbury Publishing, 2006), 14-20. 두하임은 전쟁 개요 단락과 전투 준비 단락을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지만, 큰 구분이 거의 유사하다.

### 1) 전쟁 개요 단락(1:1-2:14)

첫 번째 단락인 제1단과 제2단의 상반부는 전쟁 전체에 대한 개요에 해당한다. 전쟁의 주체는 '빛의 자녀'(레위, 유다, 베냐민 지파)이고, 주적은 '어둠의 자녀'인 벨리알이 이끄는 연합군(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갓담, 계약 위반자)이다. 천상 군대는 인간 군대와 함께 싸운다. 아군과 적군은 각각 세 번씩 승리와 실패를 반복하고, 일곱 번째 전투에서 마침내 선한 세력이 최후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 2) 전투 준비 단락(2:15-9:16)

두 번째 단락은 총 40년(35년 복무 기간 + 5년 안식년)에 걸친 전쟁의 전체적 개요를 제시한다. 이 단락은 첫 번째 안식년 동안 성전 예배의 회중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실제 전투 부대의 조직과 전략기술을 제시한다. 즉, 전쟁 나팔과 갓발과 전투 부대 구성과 무기와 전투 대형을 지시한다. 또한 이 단락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 3) 제의 단락(9:17-14:15)

세 번째 단락은 전쟁의 각 단계(시작-진행-종결)에서 수행하는 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 드리는 기도는 적들과 대신 싸우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다. 전투에 임할 때 드리는 기도는 신실한 자에게는 축복을, 벨리알의 무리에게는 저주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전투에 승리한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다.

### 4) 갓담 단락(14:16-19:13)

마지막 단락은 구체적인 전쟁 이전 단락과 이어지는 듯하지만, 내용상 '갓담의 왕'과 벨리알의 군대가 주적으로 등장하는 점에서 앞 단락과 구분된다. 이 전투에서 대제사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전쟁의 기도를 읽고, 전선을 배치하고, 진군 연설을 통해 군대를 격려한다.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계약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를 이긴다. 이 마지

막 단락의 전투에서도 승리 후 다음 날 아침에 군대는 승리의 기도를 드린다.

이상의 단락 구분은 전쟁문서가 하나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통일된 문서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 문서 전체를 면밀히 살펴볼 때, 오히려 복합적인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찬양시가 12:8-16과 19:1-8에 나온다. 제1단과 제15-19단에서 깃딤과 전투가 하루 동안 벌어지는 반면, 제2단에서 열방과 전투는 40년 동안 벌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나팔에 대한 언급 역시 여러 곳에서 반복되지만(7:1-9:9; 14:2-18), 숫자나 이름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전쟁문서는 여러 차례의 편집을 거친 저작임이 분명하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편집적 관점보다는 전쟁문서 전체에 나타나는 전쟁관에 집중하고자 한다.

### 3. 쿨란 전쟁문서의 전쟁관

전쟁문서의 첫인상은 구약성서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전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서술한 전쟁 병법서처럼 보인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문서는 구약성서의 야웨의 날

---

9 초기 쿨란 학자들은 1QM의 통일성을 주장하였다(Sukenik, Yadin, Jean Carmignac). 그러나 후대 학자들은 1QM의 편집적 특징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학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텐-자켄은 제1단을 가장 초기 저작으로 보지만, 데이비스는 마지막 저작으로 본다. Peter von der Osten-Sacken, *Gott und Belial: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m Dualismus in den Texten aus Qumra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Philip R. Davies, *1QM, the War Scroll from Qumran: Its Structure and History*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7), 21. 한편, 두하임은 4Q471War Scroll-like Text B fig.1과 비교해보면 1QM이 편집된 저작이 분명하다고 논증한다. Jean Duhaime, *The War Texts: 1 QM and Related Manuscripts* (Bloomsbury Publishing, 2006), 50.

사상과 거룩한 전쟁 개념을 극대화하고 가시화한 저작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전쟁문서에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쿰란 공동체가 전쟁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세계관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전쟁문서에 나타난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과 대깃딤전,’ ‘최후 심판, 종말 전쟁, 그리고 부활’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서 제시하지만, 사실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있다.

### 1)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세계관

전쟁문서는 우선 ‘규율서’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쿰란문서 중 ‘공동체 규율’(1QS)이나 ‘회중 규율’(1QSa or 1QSB)과 같은 여러 ‘규율’(serek) 문서처럼 ‘전쟁’에 관한 규율을 지시하는 병법서로 분류할 수 있다.<sup>11</sup> 그러나 전쟁문서는 기도문과 연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전히 병법서로만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학자들은 전쟁문서의 문학 장르를 ‘거룩한 전쟁 제의’(war ritual)나 ‘종파적 예식서’(sectarian liturgy)로 본다.<sup>12</sup> 그런데 전쟁문서는 공동체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전술, 무기, 병법, 혹은 전쟁 예식에 관한 지시사항 등을 단순히 모은 것 이상의 독특한 문학적 색채를 갖고 있다. 이 문서는 장래에 일어날 장기전을 대비하는 종말론적 안내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전쟁문서는 단순한 전쟁 기술과 전략에 대한 지시사항을 넘어서서 우주적 차원을 포함하고, 신적 개입을 통한 새 시대에 대한 계시를 의도한다는 점

10 P. Alexander, “The Evil Empire: The Qumran Eschatological War Cycle and the Origins of Jewish Opposition to Rome,” in *Emanuel: Studies in Hebrew Bible, Septuagint, and Dead Sea Scrolls in Honor of Emanuel Tov*, Shalom M. Paul et al. eds. (Leiden: Brill, 2003), 17-31.

11 전쟁문서와 고대 그레코-로만 병법서의 유사성에 관한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J. Duhaime, “The War Scroll from Qumran and the GrecoRoman Tactical Treatises,” *Revue de Qumran* 13 (1988), 133-51.

12 Jean Carmignac, *La Regie de la Guerre des Fils de Lumiere contre les Fils des Tenebres: Texte restaure, traduit et commente* (Paris: Letouzey & Ane, 1958), XI-XII.

에서 묵시문학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묵시문학은 문학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내용을 망라한다. 헨슨(Hanson)은 ‘묵시록’(apocalypse)을 문학 장르로, ‘묵시주의’(apocalypticism)를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묵시적 종말론’(apocalyptic eschatology)을 일련의 사상과 모티프로 정의 내렸다.<sup>14</sup> 1979년 *Semeia* 14호는 묵시록 특집호를 발간하는데, 여기에서 콜린스는 이제는 묵시록의 기준이 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서사적 틀을 가진 계시문학의 한 장르로, 계시는 다른 세계의 존재에 의해 인간 수령자에게 중재되어, 종말론적 구원을 구상하는 한 시간적이며, 다른 초자연적 세계와 관련된 한 공간적인 초월적 현실을 밝힌다.”<sup>15</sup> 그런데 우리말 어법에서 묵시문학은 영어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 세 가지 용어들을 포괄하여, 묵시적 사상과 모티프,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문학을 상호 교차적으로 지칭한다.

전쟁문서는 구체적인 대적을 언급하고, 전쟁의 과정과 사용할 무기 및 전술 등을 제시하지만, 전쟁을 통하여 최종적인 종말론적 구원을 구상하고, 전쟁의 전 과정에 초자연적 세력의 개입을 구상한다는 점에

---

13 그러나 스티븐 쿡과 매튜 고프 같은 학자들은 전쟁문서를 묵시록으로 보지 않고, 묵시적 ‘상징적 우주’ 혹은 ‘상상’이라고 부른다. Stephen L. Cook, “Apocalyptic Prophecy,” in *The Oxford Handbook of Apocalyptic Literature*, John J. Collins,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5. Matthew Goff, “Wisdom and Apocalyptic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Apocalyptic Literature*, John J. Collins,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3.

14 P. D. Hanson, “Apocalypse, Genre,” and “Apocalypticism,”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 (ed. K. Crim; Nashville: Abingdon, 1976), 27-34. 콜린스는 헨슨의 주장과 달리, 묵시주의와 묵시적 종말론은 묵시문학 이외의 문학 장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J. J. Collins, “What is Apocalyptic Literature,” in *Oxford Handbook of Apocalyptic Literature*, J. J. Collins,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 그랩은 묵시문학을 독립된 장르로 보지 않고, 예언의 하부 장르로 본다. Lester Grabbe,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Know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Prophetic, the Apocalyptic and Their Relationships*, Lester L. Grabbe and Robert D. Haak, eds. (New York: Clark, 2003), 22.

15 J. J. Collins, “Introduction,” *Apocalypse: The Morphology of a Genre, Semeia* 14 (1979), 9

서 콜린스가 언급한 묵시록 장르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묵시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전쟁문서는 궁극적으로 묵시문학 장르를 통해 종말론적 세계관을 표방하고 있다. 종말론(eschatology)은 ‘마지막’을 뜻하는 헬라어 ἔσχατος에서 유래한다. 헨슨은 히브리 성서의 종말론을 ‘예언자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예언자적 종말론은 “예언자가 천상회의에서 드러난 이스라엘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종교적 전망”으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계획이 세계 역사와 그들 민족의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왕과 백성들에게 해석”한다.<sup>16</sup> 이에 비해 묵시적 종말론은 “야웨의 주권에 대한 우주적 환상에서 선택된 자들이 누구인가에 관심하는 종교적 전망이다. 따라서 특성상 비밀적”이며, 묵시가들은 “정치적-역사적 영역의 연속성과는 무관하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환상을 펼쳐 나간다.”<sup>17</sup> 그러나 예언자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둘 다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 곧 야웨의 백성은 영화롭게 된 시온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을 모두 똑같이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점은 모호해진다.<sup>18</sup> 성서에서 종말론은 죽음과 심판, 하늘과 지옥,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현 질서로부터 급격하고 과격하게 다른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서막은 부활과 심판 선포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 질서에서 갈등을 겪는 무리에게 현 질서의 종언과 다가올 새 시대의 서막은 ‘종말론적 희망’으로 다가온다. 전쟁문서는 묵시문학 장르를 통해 쿰란 공동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정치 체제의 급격하고 과격

16 폴 헨슨, 이무용 옮김, 『묵시문학의 기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21.

17 헨슨, 『묵시문학의 기원』, 21.

18 헨슨, 『묵시문학의 기원』, 21.

한 붕괴를 기대하고, 천상 세력을 통한 새로운 힘의 현시와 질서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틀 안에서 생산된 저작이다.

전쟁문서의 묵시문학적 성격은 구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완결된 묵시문학 형태인 다니엘서와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전쟁문서 제1단은 다니엘서 11-12장의 관련 구절들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쟁문서 11:7-8에서 미래는 하나님이 정한 경로대로 ‘정해진 때’를 따라 진행될 ‘명령’이라고 밝힌다. 이런 묵시문학적 시간관은 다니엘서의 사왕국설(four kingdom scheme, 단 8:17; 10:14; 11:27, 35)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sup>19</sup> 전쟁문서는 사왕국설을 넘어서서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 오스텐-자켄은 다니엘서 11장과 전쟁문서 제1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전쟁문서가 다니엘서를 분명히 알고 차용하고 있음을 밝힌다.<sup>20</sup> 예를 들어, 다니엘서 11:41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북방 왕의 침략을 벗어나지만, 전쟁문서 1:1에서 이들은 앗수르의 깃딤의 동맹군이자 어둠의 자녀에 속해있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역사서에서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에돔, 모압, 암몬’은 다니엘서와 전쟁문서 둘 다에서 변경의 적대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최후 전쟁에서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적의 상징어로 등장한다.<sup>21</sup> 다니엘서 11:40에서 안티오쿠스 4세는 공격적인 북방 왕(단수형)으로 묘사되지만, 전쟁문서 1:4에서 ‘북방 왕들’(복수형)

19 사왕국설에 관한 최근 단행본은 다음을 참조하라. Andrew B. Perrin, Loren T. Stuckenbruck, Shelby Bennett, and Matthew Hama, eds. *Four Kingdom Motifs before and beyond the Book of Daniel* (Brill, 2021).

20 Peter von der Osten-Sacken, *Gott und Belial: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m Dualismus in den Texten aus Qumran* (SUNT,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30-41.

21 소수 의견으로 ‘나바테에아인들’(Nabateans)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Alexander, “The Evil Empire,” 30.

은 사악한 지도자의 공격을 받는 패배자로 묘사된다. 다니엘서 11:40-45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만, 전쟁문서 빛의 자녀는 주도권을 갖고 전쟁에 참여한다.<sup>22</sup>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반 데르 플레그(van der Ploeg)는 전쟁문서 제1단을 초기 묵시문학 판본(recension)이라고 본다.<sup>23</sup>

무엇보다도 전쟁문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제국의 정치적 속국에 놓이고,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나온 묵시문학이며, 종교적, 정치적 난관을 종말론적 기대를 형상화함으로써 타계해나가하고자 한다.<sup>24</sup> 이런 종말론적 기대감은 제14단의 기도문에서 분명히 제시된다.

우리의 온 세대가 지속되는 동안에 당신은 놀랍게도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기업 중 남은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벨리알의 제국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의 증오심이 온갖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서 그의 파멸의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의 통치 하에 있는 자들이 악하게 행동할 때에도 당신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은 넘어진 자들을 당신 자신의 권능으로 세우셨지만, 키가 큰 자들은 쓰러뜨리셨으며 그 까닭은 그들의 용사들 중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요, 그들의 날랜 사람들 중에 빠져나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귀한 자들을 당

22 von der Osten-Sacken, *Gott und Belial*, 34-41.

23 J. van der Ploeg, *Le rouleau de la guerre* (STDJ 2; Leiden: Brill, 1959), 13-14.

24 야센은 전쟁문서의 폭력성은 상상이지 실질적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lex P. Jassen, "War and Violence," in *T & T Clark Companion to the Dead Sea Scrolls*, George J. Brooke and Charlotte Hempel, eds. (T&T Clark, 2018), 569. 그러나 '상상의 폭력'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콤파공동체가 깃딤에 가해질 물리적 폭력을 '상상'만 했다고 볼 수 없다. 천상 군대의 힘을 빌려서라도 깃딤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폭력의 상상'이다.

신은 조롱하시고, 그들의 모든 무익한 존재를 무로 돌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당신의 진실한 행동들로 인하여, 당신의 위대한 당신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14:9-12).<sup>25</sup>

위 기도문은 전쟁문서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은 “벨리알의 제국이 유지”<sup>26</sup>되는 때임을 알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전쟁문서는 깃딤과의 전쟁을 종말 전쟁으로 간주한다. 알렉산더(Alexander)는 최후의 종말 전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문서를 ‘종말론적 시나리오’라고 본다.<sup>27</sup> 전쟁문서의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기대는 대깃딤전의 승리를 통하여 우주적 승리가 땅에서도 “남은 자”(13:8; 14:8, 9)에게 체감되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2) 이원론적 세계관과 대깃딤전

전쟁문서 제1단 첫 부분은 전쟁문서의 주역과 주적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한다. 전쟁의 주역은 ‘빛의 자녀’라고 불린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레위, 유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언급한다. 이들에 대항하는 주적은 총칭해서 ‘어둠의 자녀의 무리’(בְּנוֹרַיִם בְּנוֹי חוֹשֶׁךְ/베고랄 브네이 호세크)라고 불린다.<sup>28</sup> 콤란문서 중에서 이원론의 성격을 가

25 F. 마르티네즈, E. 티그셀라아르, 강성열 옮김, 『사해문서1: 1Q1-4Q155』 (나남, 2008), 186.

26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은 “벨리알의 통치 동안”(בְּמַשְׁלַת בְּלִיעֵל/베멤셀레트 벨리알)이다.

27 Alexander, “The Evil Empire,” 18. 알렉산더는 ‘종말론적 시나리오’와 ‘종말론적 규율’(eschatological serakhim)을 구분한다.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종말 전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사라면, 종말론적 규율은 “종말론적 공동체가 종말론적 시나리오라는 관점에서 취해야만 하는 전략과 전술에 대한 지시”라고 정의 내린다.

28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Heinz-Josef Fabry,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ume II* (Wm. B. Eerdmans Publishing, 1974), 456. 콤란문서에서 히브리어 ‘נוֹרַיִם’은 구약성서 어법과 달라진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제비뽑기용 돌을 지칭한다(욘 1:7; 느 10:34 등). 콤란문서에서 이 단어의 뜻은 ‘결정’이나 ‘해법’으로 사용되고(1QS 5:3; 6:16, 18, 22; 9:7; CD 13:4),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결정으로 이루어진 위계

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서는 공동체 규율(1QS)의 “두 영의 소고”(The Treatise of Two Spirits, 3:13-4:26)이다. 이 소고를 보면, 창조주는 인간 안에 두 영, 즉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두셨다고 한다. 진리의 영을 둔 자들은 ‘의의 자녀’로 불리고, ‘빛을 주관하는 지도자’의 손에 놓인다. 반면, 거짓의 영을 둔 자들은 ‘거짓의 자녀’로 불리고, ‘어둠의 천사’로 인하여 타락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다. 이 소고는 “인간의 역사는 두 영을 중심축으로 진행”(4:15)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은 진멸할 것이라고 말한다(4:20).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신적 진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 틀 안에서 진행될 전쟁계획서를 보여주는 것이 전쟁문서이다. 전쟁문서의 묵시적 성격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같은 이원론적 용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전쟁문서는 1QS와 마찬가지로 아군을 ‘빛의 자녀’로, 적군을 ‘어둠의 자녀’로 부른다. 그리고 천상적 지도자를 ‘빛의 지도자’(13:10), ‘빛에 거하는 미가엘’(17:6), 악한 세력의 지배자를 ‘벨리알’과 ‘악한 천사’(13:12)라고 부른다.

공동체 규율의 “두 영의 소고”에 나타난 이원론이 개인의 윤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전쟁문서의 이원론은 개인의 운명을 천상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며, 빛과 어둠의 우주적 전쟁의 차원으로 확대한다.<sup>29</sup> 전쟁문서는 벨리알과 그의 무리의 운명이 종말 전쟁을 통하여 결국 소멸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그래서 프레이(Frey)는 전쟁

---

(1QS 1:10; 2:23 1QSa 1:9, 20)를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쿰란에서 ‘גורל’(고랄)은 그 결정과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데까지 의미가 확대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전쟁문서에서 사용된 ‘벨리알의 무리’나 ‘어둠의 자녀의 무리’와 같은 어법이다.

29 쿰란 이원론은 유형론적으로 보아 대개 형이상학적, 우주적, 공간적, 종말론적, 윤리적, 구원론적, 신학적, 물리적, 인류학적, 심리적 이원론으로 구분한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 말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이원론적 언어 이해하기,”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1 (2005), 27-41.

문서의 이원론을 ‘우주적이며 종말론적’ 이원론이라고 정의 내린다.<sup>30</sup> 그런데 전쟁문서에서 이런 기대는 일반적 악의 세력의 종식을 포함하지만, ‘지배권’(ממשלה/멜살라)과 ‘군대’(צבא/짜바)라는 용어와 이와 연관된 전쟁계획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현실 상황을 염두에 둔 이원론을 제시한다.

전쟁문서는 총 일곱 차례에 걸친 전쟁을 구상한다. 세 번의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최후 승리가 이루어진다. 벨리알의 군대는 ‘앗수르의 깃뎀’이 지휘하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과 ‘이집트에 있는 깃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주적 개념은 전쟁문서를 단순히 신비적 문서나<sup>31</sup> 종말론적 개념화 문서<sup>32</sup>가 아니라, 현실의 정치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문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벨리알의 무리가 일반적인 악의 세력 전체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전쟁문서 안에서 ‘앗수르의 깃뎀’과 ‘이집트에 있는 깃뎀’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볼 때 더욱 명확하다. 벨리알과 그의 무리의 지배가 마침내 끝나리라는 기대는 콤란 이원론의 사회, 정치적 측면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런 파국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는 벨리알과 그의 지배의 최후 파국은 추상적 악의 세력의 종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세력의 종말에 대한 기대이다. 그러므로 콤란 이원론은 심리적,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정치적

30 Jörg Frey, “Apocalyptic Dual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Apocalyptic Literature*, John J. Collins,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84.

31 Johannes A. Huntjens, “Contrasting Notions of Covenant and Law in the Texts from Qumran,” *Revue de Qumran* 8/3 (1974), 376.

32 Scott J. Hafemann, “The Spirit of the New Covenant, the Law, and the Temple of God’s Presence: Five Theses on Qumran Self-Understanding and the Contours of Paul’s Thought,” in *Evangelium Schriftauslegung Kirche. Festschrift für Peter Stuhlmacher zum 65 Geburtstag*, J. Adna, S. J. Hafemann and O. Hofius, ed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172-189.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쿰란 공동체는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깃딤의 세력을 벨리알의 무리, 어둠의 자녀, 악의 무리라고 지칭함으로써,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이항 대립을 시도한다. 전쟁문서에서 ‘깃딤’은 벨리알의 무리의 구체적인 지상의 악의 실체로 등장하고 있다. 전쟁문서는 로마 제국과 벨리알의 연합군, 어둠의 자녀를 동일시한다.<sup>33</sup> 전쟁문서는 왜 깃딤을 주적으로 보는지 역사 정치적 배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약 창세기에서 ‘깃딤’은 야완(그리스)의 아들 중의 하나이며, 이들은 바닷가의 땅에 거주한다(10:4). 그런데 쿰란에서 ‘깃딤’은 그리스가 아닌 로마를 지칭한다. 깃딤과 로마의 동일시는 페세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페세르 나훔은 “그리스의 왕들 안티오쿠스부터 깃딤의 통치자의 등장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후”에 대해 예견한다(4Q169 3-4.i.2-3). 페세르 나훔이 깃딤의 ‘통치자’를 언급하고, 페세르 하박국은 깃딤을 왕이 아닌 ‘지도자들’(מְשֻׁלָּיִם/모셀림)이 통치하는 나라(4:5, 10, 12)라고 서술하는데, 이 표현은 로마의 원로원(senate) 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sup>34</sup> 페세르의 ‘깃딤’이 로마를 암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쿰란문서에서 ‘깃딤’은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와 동일시 해야 한다.<sup>35</sup>

대개 학자들은 전쟁문서의 기록연대로 기원전 1세기 말에서 기원후 1세기 초로 추정한다. 야딘은 전쟁문서의 기록연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폼페이와 예루살렘 함락(기원전 63년)부터 헤롯의 죽음(기원전 4년) 이

33 Philip R. Davies, “The Biblical and Qumranic Concept of War,”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1: Scripture and the Scrolls*, Charlesworth, ed.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223.

34 또한 페세르 하박국은 깃딤을 ‘깃발을 섬기는 나라’(6:4)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형적인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35 Timothy H. Lim, “Kittim,” in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Lawrence H. Schiffman; James C. VanderKam,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69-471.

전 시기라고 본다.<sup>36</sup> 이 당시 유다 사회는 하스몬 왕가가 정치적 독립을 점차 상실하면서, 로마의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하스몬 왕가의 알렉산더 야나이(기원전 103-76년)가 죽고 그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틀루스 2세는 정쟁을 벌인다. 결국 이들 형제의 난은 로마의 유다 내정 간섭의 길을 재촉하게 된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는 유대인들이 폼페이와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재앙을 겪게 된 것은 “모두가 힐카누스와 아리스토틀루스 때문”이라고 선언한다(14.4.5).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4권을 보면, 이 두 형제의 정쟁 촉매는 후에 유다의 왕이 되는 헤롯의 아버지 이두매 총독 안티파테르의 부추김 때문이었다. 그는 원래는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힐카누스에게 동생 아리스토틀루스와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암살 위협이 있으니 오히려 왕이 되라고 종용하였다. 힐카누스는 결국 안티파테르의 조언을 따라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에 가서, 군사적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힐카누스는 아레타스에게 알렉산더 야나이 시절 빼긴 아라비아 도시 12곳을 돌려주기로 약조하고, 아라비아군과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힐카누스는 군대 5만으로 아리스토틀루스를 공격하여 성공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힐카누스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 무렵(기원전 64년) 폼페이의 사신 스카우루스(Aemilius Scaurus)가 시리아에 도착하였다. 아리스토틀루

36 Yadin, *The Scroll of the War*, 246. 전쟁문서는 “깃딤의 왕”(15:2)이라고 부르는데, 드라이버는 이를 로마 제정 시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G. R. Driver, *The Judean Scrolls* (Oxford: Basil Blackwell, 1965), 제4장, 168-225. 듀퐁-소머 역시 전쟁문서를 기원전 63년 이후의 저작으로 본다. A. Dupont-Sommer,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 2d rev. and enl. (Cleveland and New York: Meridian Books, 1969), 164-97. 반면, 시겔과 그멀킨은 마카비 시대인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본다. M. H. Segal, “The Qumran War Scroll and the Date of its Composition,” in *Scripta Hierosolymitana 4, Aspects of the Dead Sea Scrolls*, eds. C. Rabin and Y. Yadin (Jerusalem: Magnes Press, 1958), 138-143. Russell Gmirkin, “The War Scroll and Roman Weaponry Reconsidered,” *Dead Sea Discoveries* 3.2 (1996), 89-129. 아비-요나 역시 전쟁문서의 기록연대를 마카비 시대로 본다. M. Avi-Yonah, “The War of the Sons of Light and the Sons of Darkness and Maccabean Warfare,” *Israel Exploration Journal* (1952), 1-5.

스와 힐카누스는 동시에 사신을 보내 로마군의 협조를 구하였다. 아리스토틀루스는 400달란트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스카우루스는 공조하기로 약조하였다.<sup>37</sup> 스카우루스는 아레타스에게 유다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고, 본인은 다마스쿠스로 귀환하였다. 아리스토틀루스는 아레타스와 힐카누스 연합군을 공격하여 격퇴하였고, 이때 안티파테르의 형제 팔리온은 전사하였다. 이때까지 아리스토틀루스의 승리로 보였다.

그런데 기원전 63년 폼페이가가 다마스쿠스에 오자, 아리스토틀루스는 또다시 500달란트의 금 포도나무를 조공으로 바쳤다. 힐카누스 역시 사신을 보냈다. 폼페이는 나바테아인의 문제를 살핀 후 돌아와서 이 형제의 고소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틀루스는 그 사이에 유다로 행군하였고, 폼페이는 분노하여 아리스토틀루스에게 요새 양도서를 쓰라고 하였지만 거부하자, 공격하였다. 결국 폼페이는 예루살렘을 함락에 성공하였다. 힐카누스는 폼페이의 예루살렘 공격에 부역한 공로로 대제사장직에 복직하게 되었다.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에서 로마의 의존국(client state)이 된 유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폼페이는 유대국이 전에 정복한 코엘레수리아 땅의 도시들을 빼앗아 코엘레수리아의 총독의 관할로 이전시킴으로써 유대국을 본래의 영토의 크기로 축소시켰다. 폼페이는 또한 그의 신하인 가다라 출생 데메트리우스라는 인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유대인들이 허물어뜨린 가다라를 재건하였다. 폼페이는 또한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유대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폼페이는 수리아와 유대와 애굽과 유브라데에 이르는 전 지역을 스카우루스 총독에게 일임하고 2개 군단의 병력을 주어 그곳을 다스리게 했다(유대

37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는 300달란트로 나온다(1.6.3).

전쟁사 1.7.7).<sup>38</sup>

로마가 셀루키드 왕국을 기원전 196년에 정복한 이래 유대는 권력 관계망에서 이미 오랫동안 로마의 헤게모니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폼페이와 예루살렘 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는 로마의 의존국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유대고대사』에서 하스몬 왕조의 두 형제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로마인들은 10,000달란트도 더 되는 돈을 빼앗아 갔으며 형식상 대제사장에게 수여되는 왕권은 일개 사인의 소유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 폼페이는 이때 아리스토틀루스와 그의 자녀들을 끌고 갔다(유대고대사 14.4.5).<sup>39</sup>

로마의 유대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하스몬 왕가와 대립하여 유대 광야에서 살아갔던 쿰란 공동체가 로마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쿰란문서 중 하나인 페세르 하박국은 로마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이전에 이미 전리품의 노략과 조공으로 부를 축적해가는 로마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6:1, 6-8a).<sup>40</sup> 그런데 전쟁문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깃딤’이라는 이름으로 로마를 벨리알의 어둠의 무리와 동일시하며, 최후 전쟁을 통하여

---

38 요세푸스, 김지찬 옮김, 『유대전쟁사 III: 예루살렘 함락사』 (생명의 말씀사, 1987), 48-48.

39 요세푸스, 김지찬 옮김, 『유대고대사 II: 고레스 원년부터 로마총독 플로루스까지』 (생명의 말씀사, 1987), 218.

40 쿰란의 ‘깃딤’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이윤경, “로마공화정 후기 유대인의 로마관: 하스몬 왕조와 쿰란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53 (2018), 7-32. “그 해석은 깃딤의 지도자들과 [관련] 되어 있다. 그들은 범죄자 집안의 조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의 순서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잇달아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처럼 떠받든다” (1QpHab 4:10-13)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전쟁문서의 깃딤 단락(14:16-19:13)은 깃딤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를 “이스라엘을 위한 고통의 때”(15:1)라고 정의 내린다. 전쟁의 대상은 분명하게 “깃딤의 왕과 벨리알이 모든 군대”(15:2-3)라고 지명한다. 깃딤 단락 이전까지 전쟁문서는 ‘적’이나 ‘벨리알’ 혹은 ‘어둠’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대적을 지시했다면, 이제 주적이 ‘깃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야딘은 제1단 12-14행에서 일곱 번에 걸친 깃딤과의 전쟁이 있다는 언급과 제17단 6행의 끝부분에 “세 번째 단계”라는 구문이 나오는 것을 결합해서, 전쟁문서는 깃딤과 빛의 자녀들이 세 번씩 승리와 패배를 나눠 갖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전쟁에서 빛의 자녀가 최후 승리를 거두는 도식을 그리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한다.<sup>41</sup>

깃딤전은 대제사장의 “전쟁을 위해 정해진 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15:4). 대제사장은 구약성서의 전형적인 거룩한 전쟁의 제의 방식을 좇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요, 용감한 자들이 될지니라.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지니라. 너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들로 인하여 허둥대거나 겁먹지 말 것이요. 뒤로 물러서거나 그들에게서 도망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무리요, 그들의 모든 행동은 어둠 속에 있고, 그들의 욕망이 어둠을 향해 움직이며, 그들의 피난처, 그들의 힘이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15:7-10)라고 선언한다.<sup>42</sup> 이어서 본격적인 전투에서 대깃딤 지휘관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전사들이 전투 진형을 잡고, 무기를 들고, 살육을 지시한다. 빛의 자녀가 전투에서 실패한 후,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전사들에게 격려

41 야딘은 17:7-18:8 단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1, 2차전은 빛의 자녀 패배, 제3차전 승리, 제4, 5차전 승리, 제6차전 패배, 제7차전 최후 승리로 전체 전투 과정의 승패를 재구성한다. Yadin, *The Scroll of the War*, 12.

42 F. 마르티네즈, E. 티그셀라아르, 강성열 옮김, 『사해문서1: 1Q1-4Q155』, 188.

연설을 한다. 이 패배의 시기를 “모진 시련 속에서 시험을 받는”(17:1) 때로 본다. 그러나 깃딤 전투의 전체 과정이 ‘당신의 뜻에 따라 정해진 때’(18:10-16)를 진행하고,<sup>43</sup> 마침내 “하나님의 강한 손”(18:1)의 기적적으로 개입하여 최후 승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다.

### 3) 최후 심판, 종말 전쟁, 그리고 부활

구약성서에는 여호와와의 전쟁기(민 21:14), 야웨의 날(겔 13:5; 율 1:15; 2:1, 11; 암 5:18, 20; 말 4:5), 전쟁의 날(슥 14:3), 용사이신 야웨(사 30:32) 등에 관한 언급이 곳곳에서 나온다.<sup>44</sup> 심지어 시편에도 전쟁은 용사이신 야웨(시 24:8)나 전쟁이 야웨에게 속한 것이라는 개념이 제시된다(시 140:7). 그러나 구약에서 전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룩한 전쟁’은 역사서에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의 전쟁들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제시된다.<sup>45</sup> 구약의 거룩한 전쟁 연구의 선구자인 폰 라트(von Rad)는 진멸을 동반하는 거룩한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제의적 전쟁’(ceremonial war)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sup>46</sup>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43 원래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어 מוֹעֵדֵי is 일곱 절기를 위해 ‘정해진 때’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쿨란문서에서 종말론적 색채를 띠고 하나님의 정해진 최후 심판과 승리의 때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1QS 4:18-23에서 이 단어는 최후 심판을 위해 정해진 때를 의미한다. 페세르 하바국 7:6-13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쟁문서는 이날을 ‘보복의 날’(7:10-11)로 정해진 때라고 명명한다.

44 구약성서와 쿨란문서의 전쟁 개념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Philip R. Davies, “The Biblical and Qumranic Concept of War,”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1: Scripture and the Scrolls*, James H. Charlesworth, ed.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209-232.

45 강사문은 ‘거룩한 전쟁’(holy war)과 ‘야웨의 전쟁’(Yahweh war)을 구분하고, ‘야웨의 전쟁’은 왕정시대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라고 본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사사기의 정복 전쟁은 후대의 ‘야웨의 전쟁’ 제도에 영향을 받은 내러티브로 본다.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Berlin: Walter de Gruyter, 1989).

46 Gerhard von Rad, *Holy War in Ancient Israel*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0).

에 따라 전쟁 때에 그저 전쟁의 합성을 지르고, 전리품을 태우거나, 거두고, 찬양의 합성을 내뿜을 뿐이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구약의 오경이나 역사서에서 거룩한 전쟁은 실제 전쟁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제의적 이데올로기로 제시될 뿐이다. 거룩한 전쟁의 제의적 속성은 사실상 고대 근동의 전쟁 수행 때 동반되는 주술적 행위와 저주 제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약의 역사서에 언급되는 수많은 전쟁의 승패는 신적 승인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개념과 더불어 이해해야 한다.<sup>47</sup>

그런데 역사서의 거룩한 전쟁 이데올로기는 몇몇 예언서에서 종말론적 주제와 결합하여 종말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 ‘북방 왕국’에서 적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한다(렘 1:13-15; 4:6; 6:22). 구약의 예언서 전통에서 북쪽에서 오는 적군은 시대에 따라 특정 나라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에서 점차 불특정한 강력한 군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48</sup> 그 예는 에스겔 38-39장에서 종말론적 대적인 곡의 군대가 등장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49</sup> 에스겔에서 곡의 군대도 ‘북쪽 끝에서부터’(겔 39:2) 당도한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신적 도움을 통해 결국 승리한다. 블렌킨숍은 예언적 종

47 Rudiger Schmitt, “War Rituals in the Old Testament: Prophets, Kings, and the Ritual Preparation for War” in *Warfare, Ritual, and Symbol in Biblical and Modern Contexts*. Vol. 18. Brad E. Kelle, and Ames Frank Ritchel, eds, (Society of Biblical Lit, 2014). 이 논문에서 슈미트는 고대 근동의 전쟁을 통해, 전쟁의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는 단계마다 행해지는 제의적 관행이 있었음을 제시하고, 이런 고대 근동의 관행을 구약의 역사서에 나타난 전쟁 내러티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8 왕대일은 예레미야의 북방에서 오는 군대를 에스겔은 곡의 군대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본다. 왕대일, “곡의 멸망·곡의 무덤, 종말에 이르는 이정표(겔 39:1-20),” 『신학과세계』 88(2016), 7-36.

49 몇몇 학자들은 에스겔 38-39장을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 단락으로 보고, 포로기 이후에 추가된 단락이라고 주장한다. Walther Zimmerli, *Ezekiel 2*, trans. J. D. Martin, Hermenc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302.

말 전쟁의 특징적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50</sup>

- (1) 적군이 북방에서 공격해 온다(렘 1:13-15; 4:5-18; 6:22; 욥 2:20).
- (2) 그들의 침공으로 야웨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최후의 결전이 있다(사 17:12-14; 함 3:8; 슥 14:3-4).
- (3) 이 최후의 결전에는 지진과 우주의 격변이 수반된다(사 24:19-23; 나 1:4-5; 욥 4:15-16).
- (4) 이 결전은 이스라엘 땅에서(사 14:24-25), 예루살렘 안이나 근처에서(슥 14:1-5) 치러진다.
- (5) 적군이 패배한 후에, 그들의 병기는 부서지거나 뒤틀림으로 쓰이게 된다(사 9:5).
- (6)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제사의 향연을 열어 경축한다(사 34:5-8; 렘 46:10; 슥 1:7-8).

이 시나리오를 보면, 역사서의 거룩한 전쟁과 예언서의 종말 전쟁은 모두 전쟁은 야웨에게 속한 것이며, 결국 최후 승리 역시 야웨의 승리라는 사상을 공유한다. 그러나 역사서에서는 구체적인 대적 세력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예언서에서는 은유적 표현인 ‘북방에서 오는 적군’으로 등장한다는 점과 지진과 대격변과 같은 우주적 요소과 동반되는 점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예언서에서 전쟁의 종결 부분은 더욱더 제의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점에서 블렌킨썸은 에스겔 38-39장을 “예언적 종말론과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론적 환상들 사이의 과도기 형태”라고 본다.<sup>51</sup>

---

50 조셉 블렌킨썸, 『현대성서주석: 에스겔』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57. 에스겔 38-39장의 마곡의 곡은 신약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의인화된 종말론적 악의 세력(계 20:8)으로 등장한다. 에스겔 38-39장과 계시록 사이에는 다니엘 10-12장이 있다.

51 블렌킨썸, 『현대성서주석: 에스겔』, 258.

알렌은 곡 계시가 다니엘 11:40-45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종말 예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sup>52</sup> 다니엘 10-12장은 전쟁문서의 바로 직전 단계의 종말 전쟁 개념을 제시한다. 다니엘 10-12장은 프톨레미 제국과 셀루키드 제국 사이의 전쟁을 다루지만, 그 전쟁은 미가엘의 군대가 이끄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로 종결되리라고 전망한다. 특히 다니엘 12장은 최후 전쟁 이후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왕들과 이방 백성들은 멸망하고, ‘기록된 모든’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12:1).<sup>53</sup>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니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12:2-3)고 말한다. 이미 구약성서의 몇몇 예언서에서 ‘부활’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암시되었지만(호 6:2; 사 25:8; 26:19; 겔 37장), 다니엘서 12:2의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라는 언급을 볼 때, 이 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개인의 부활을 언급하는 개념적 전환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sup>54</sup>

다니엘서에서 종말 전쟁은 악한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으로써 불가피한 우주적 사건이며, 이 심판과 전쟁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강사문은 이미 왕정 이전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52 레슬리 C. 알렌, 정일오 옮김, 『에스겔 20-48』(WBC주석; 솔로몬, 2008), 392.

53 Émile Puech, “Resurrection: The Bible and Qumran,”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Volume 2,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Qumran Community*, James H. Charlesworth, ed.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252.

54 W. 시블리 타우너, 『현대성서주석: 다니엘서』(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31. 기록한 전쟁 개념의 종말론적 성격으로의 변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J. Collins, “The Mythology of Holy War in Daniel and the Qumran Was Scroll: A Point of Transition in Jewish Apocalyptic,” *Vetus Testamentum* 25 (1975), 596-612.

의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예: 삼상 24:13-16).<sup>55</sup> 전쟁문서에도 종말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제시된다. 예를 들어, 보병 대대의 세 번째 단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은 악인들을 삼키는 칼의 화염”이라는 글귀를 새기고 있다(6:3). 또한 최후 승리를 기념하는 대제사장의 감사 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기병들은 … 모든 것 위에 심판을 내리는 꾸준히 퍼붓는 폭우처럼”(19:2)이라고 묘사한다. 다니엘서와 유사하게, 전쟁문서는 승리 이후 대제사장의 감사 기도문을 통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티끌로부터 일으키시고”(14:14)라고 묘사함으로써, 최후 심판으로서 종말 전쟁과 부활 개념을 연결하고 있다.<sup>56</sup>

이런 개념적 전환의 배경으로 학자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지적한다. 조로아스터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계시 종교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대승 불교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 쿰란문서 역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다.<sup>57</sup> 이 종교의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헬리어: 조로아스터)는 신의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살 수 없다고 보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후원자(Saošyant)가 마지막 투쟁에서 선한 세력을 이끌 것이라고 가르친다.<sup>58</sup> 조로아스터교의 후대 추종자들은 이 후원자가 동정녀 어머니가 낳은 기적의 아들로 구세주가 될

55 강사문, “야웨 하느님의 전쟁에 대한 재고,” 『기독교사상』 28/6 (1984), 140.

56 Émile Puech, “Resurrection: The Bible and Qumran,”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Volume 2,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Qumran Community*, James H. Charlesworth, ed.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275.

57 F. M. Cross,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3rd e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6-78.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각각도 조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ames Barr, “The Question of Religious Influence: The Case of Zoroastrianism, Judaism, and Christian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3/2 (1985), 201-235.

58 Mary Boyce, “On the Antiquity of Zoroastrian Apocalyptic,”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47/1 (1984), 57. ‘Saošyant’의 문자적 의미는 ‘유익을 가져올 자’이다.

것이라는 교리로 확장한다.<sup>59</sup>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는 후원자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그는 악과의 최후 전쟁에서 인류를 지휘하여 승리로 이끈다. 이제 세상은 서서히 원래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조로아스터교는 이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Frashokereti’(Phalvi: 치유 혹은 회복)라고 불린다. 이때 선이 악과 구분되고, 악은 소멸하고, 선과 악의 구분은 영원하게 된다. 이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 가운데 아후라 마즈다와 모든 인간은 참된 선과 평화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sup>60</sup> 특히 조로아스터 교리 중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사람은 죽으면 이마(Yima, Yama)가 다스리는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되고, 살아 있는 후손들(주로 장자)이 죽은 후 3일 동안 먹이고 입히는 것에 따라 그림자 존재로 있는 죽은 자의 영혼이 무사히 죽음의 강을 건너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sup>61</sup> 낙원에 든 영혼은 부활한 육체와 연합하고 온전한 지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최후 심판 이후 부활이 있고, 이때 의인과 악인은 구분된다.<sup>62</sup>

전쟁문서는 역사서의 거룩한 전쟁과 다니엘서의 종말 전쟁 전승의 연장선상에서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으로써 전쟁을 묘사한다. 그러나 전쟁문서는 구약성서의 거룩한 전쟁이나 종말론적 전쟁 내러티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구체적인 단계적 종말 전쟁을 기술하고 있다. 이 문서는 다니엘서 10-12장의 최후 전쟁 주제를 확대 발전시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최후에 수행할 전쟁을 상술한다. 전체적으로 전쟁문서에서 제시하는 전쟁은 묵시적 종말 전쟁이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대표되는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의 연속을 통하여 결

59 아베스타 텍스트, Yasna 43.16.

60 Mary Boyce,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London: Routledge, 1979), 26.

61 Boyce,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13.

62 Boyce,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27-28.

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벨리알의 무리인 어둠의 자녀들은 아바돈의 불 속에 던져진다(14:17).<sup>63</sup> 전쟁문서는 다니엘서가 최후 전쟁의 결론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고, 영원히 악이 제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전쟁문서 전체는 제1단 3행에서 밝히듯이 “유배당한 빛의 자녀들이 열방의 광야로부터 예루살렘의 광야”로의 귀환을 꿈꾸고 있다. 야딘은 전쟁문서를 “성서와 위경의 묵시적이며 종말론적 부분”에서 유래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고, 전쟁의 경로와 운영과 방법을 결정하는 배경과 시작과 종점에 계시와 환상이 등장하는 것을 지적한다.<sup>64</sup> 무엇보다도 야딘이 지적한 것처럼, 전쟁문서는 임박한 구원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말론적 희망’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묵시문학 텍스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인해 현 질서가 급진적으로 변화하여 새 땅과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다. 이런 종말론적 희망이 전쟁문서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난다(19:4-8).

#### 4. 나가는 말

구약성서는 ‘용사이신 야웨’(출 15:3), ‘거룩한 전쟁’과 ‘야웨의 날’과 같은 전쟁 전승이 신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전승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종말론적 기대감과 결합하고(예: 겔 38-39 장), 묵시문학 안에서 천상군의 개입을 기대한다(예: 단 12장). 전쟁문서는 구약성서의 전쟁 전승을 계승하면서, 압도하는 로마의 정치세력을 ‘깃뎀’으로 부르며 다가오는 최후 전쟁의 주적으로 직시한다. 전쟁문서

63 아바돈(Abaddon)은 ‘스울’(1QH 3:16-19), ‘깊은 구덩이’(4Q504), ‘죽음’(1QGenAp 12)를 뜻하며, 죽은 자와 벨리알의 거처이다(4Q286 7.ii.7-10 = 4Q287 6:6-9).

64 Yadin, *The Scroll of the War*, 14.

는 기원전 60년부터 30년까지 대략 30년 시기에 콤란 공동체가 로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전쟁문서는 깃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깃딤의 무기와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콤란 공동체는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국의 연장을 사용한다. 그러나 제국의 연장만으로 제국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안다.<sup>65</sup> 깃딤의 무기와 방법을 통해서 깃딤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 다른 깃딤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깃딤과 같은 제국이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을 통해서만 완전히 무너지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가까운 시기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강사문, “아웨 하느님의 전쟁에 대한 재고,” 『기독교사상』 28/6 (1984), 131-142.
- 레슬리 C. 알렌, 정일오 옮김, 『에스겔 20-48』 WBC주석; 솔로몬, 2008.
- 배정훈,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19 (2013), 323-347.
- 송창현, “콤란 사본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74 (2014), 190-228.
-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이원론적 언어 이해하기,”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1 (2005), 27-41.
-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계약 신학,” 『구약논단』 20 (2006), 59-81.
- 이윤경, “로마공화정 후기 유대인의 로마관: 하스몬 왕조와 콤란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53 (2018), 7-32.
- 조명기, “콤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22 (2006), 115-128.
- 조셉 블렌킨썩, 『현대성서주석: 에스겔』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Avi-Yonah, M. “The ‘War of the Sons of Light and the Sons of Darkness’ and Maccabean Warfare,” *Israel Exploration Journal* 2/1 (1952), 1-5.

---

65 Audre Lorde, “The Master’s Tools will never Dismantle the Master’s House,” *Feminist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Reina Lewis and Sara Mills, eds. (Routledge, 2003), 27.

- Boyce, Mary. "On the Antiquity of Zoroastrian Apocalyptic,"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47/1 (1984), 57-75.
- Boyce, Mary.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London: Routledge, 1979.
- Collins, John J. "The Mythology of Holy War in Daniel and the Qumran War Scroll: A Point of Transition in Jewish Apocalyptic," *Vetus Testamentum* 25/3 (1975), 596-612.
- Davies, Philip R. "Dualism and Eschatology in the Qumran War Scroll," *Vetus Testamentum* 28/1 (1978), 28-36.
- Davies, Philip R. "The Biblical and Qumranic Concept of War,"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1: Scripture and the Scrolls*, James H. Charlesworth, ed.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209-232.
- Duhaime, Jean. "The 'War Scroll' from Qumran and the Greco-Roman Tactical Treatises." *Revue de Qumrân* 13 (1988), 133-51.
- Duhaime, Jean. *The War Texts: IQM and Related Manuscripts*. Bloomsbury Publishing, 2006.
- Gmirkin, Russell. "The War Scroll and Roman Weaponry Reconsidered," *Dead Sea Discoveries* 3/2 (1996), 89-129.
- Gmirkin, Russell. "Historical Allusions in the War Scroll." *Dead Sea Discoveries* 5/2 (1998), 172-214.
- Kelle, Brad E., and Ames Frank Ritchel, eds. *Warfare, Ritual, and Symbol in Biblical and Modern Contexts*. Vol. 18. Society of Biblical Lit, 2014.
- Martínez, Florentino García. "The War Scroll and Related Literature: War and Peace in the Dead Sea Scrolls," in *Deuterocanonical and Cognate Literature Yearbook 2010: Visions of Peace and Tales of War*. Edited by Jan Liesen and Pancratius C. Beentje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0, 303-334.
- Puech, Émile. "Resurrection: The Bible and Qumran,"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Volume 2,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Qumran Community*, James H. Charlesworth, ed.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247-282.
- Screnock, John. "Word Order in the War Scroll (1QM)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Dead Sea Discoveries* 18/1 (2011), 29-44.
- Wee, John Zhu-En. "A Model for the Composition and Purpose of Columns Xv-Xix of the 'War Scroll (1QM).'" *Revue de Qumrân* 21/2 (2003), 263-83.
- Weitzman, Steven. "Warring against Terror The 'War Scroll' and the Mobilization of Emo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40/2 (2009), 213-41.

검색어

1QM, 전쟁문서, 쿤란, 깃딤, 묵시문학적 종말론

[ ABSTRACT ]

## The Worldview of the War Scroll (1QM)

Yoon-K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worldview of the Qumran community through the War Scroll (1QM), the most detailed war manual in the Jewish literature of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War Scroll is an important document that presents the transition from the holy war ideology of the Old Testament to the apocalyptic eschatological concept of war. The War Scroll shows how the Qumran community perceived the world around them and what future they expected. The War Scroll appears to be a work that maximizes and visualizes the idea of YHWH's Day and the holy war in the Old Testament. This paper traces the worldview that the Qumran community intends to present through war,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 elements in the War Scroll. In this paper, the 'apocalyptic eschatological worldview,' 'dualistic worldview and War against the Kittim,' and 'last judgment, apocalyptic war, and resurrection' are presented separately for convenience of discussion. Still, they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one another. The War Scroll maintains the frame of 'eschatological hope' in that it expects the time of imminent salvation. The apocalyptic texts of the Old Testament dream of a new earth, new heaven, and new Jerusalem as the present order is radically changed due to God's supernatural intervention. This eschatological hope is also strongly expressed in the War Scroll. The War Scroll testifies to how the Qumran

www.kci.go.kr

community viewed Rome for approximately 30 years, from 60 to 30 BCE. They expected an empire like the Kittim to be destroyed only through God's supernatural intervention. However, their expectations were never met shortly.

key words

1QM, War Scroll, Qumran, Kittim, Apocalyptic Eschatology

투고일: 2022년 10월 01일

심사일: 2022년 11월 07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9일

[www.kci.go.kr](http://www.kci.go.kr)